

# 한-UAE, 14년만에 운수권 주15회→21회 증대 합의

- 한-아랍에미리트 간 항공회담(10.12~10.13) 개최, 양국 간 항공 운수권 증대 합의
- 양국간 이동 편의성 증대, 인적·물적 교류 대폭 확대 전망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0.12~13일 서울에서 아랍에미리트(UAE) 민간 항공청과 항공회담\*을 개최하여, 양국간 국제선 운수권\*\* 증대를 합의했다.

\* (수석대표) 韓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, UAE 민간항공청 부청장 등

\*\* 운수권 : 양국 정부간 합의를 통해 정하는 주단위 항공기 운항 횟수에 대한 권리

○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1월 우리 기업에 300억불 투자 약정, 해외건설 수주 누적금액 2위(835억불) 등 경제교류가 활발한 중동의 핵심 협력 국가로,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항공운송 분야로 확대하게 됐다.

□ 이번 양국간 합의로 한-UAE간 운수권은 기존 주15회에서 주21회로 총 주6회가 증대되어, 양국간 인적·물적 교류 기회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.

○ 참고로 금번 양국간 운수권 증대는 '09년 주7회 증가(주8→주15회) 합의 후 14년 만이다.

## 【 운수권 증대 상세내용 】

노선 구분	기존	금번 합의	증대분
韓모든공항 - UAE모든공항	주8회	주14회	+주6회
韓모든공항 - UAE아부다비공항	주7회	주7회	-
합계	주15회	주21회	+주6회

□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“이번 합의는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 등 新중동분 확대와 국민들의 유럽·아프리카 등 장거리 이동의 편의성·선택권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항공정책관	책임자	과 장	김동현 (044-201-4207)
	국제항공과	담당자	사무관	성경림 (044-201-4215)

1. 한-UAE 운수권 증대 연혁

시기	합의내용	합의 후 운수권 합계
'99.4월	· 양국 모든공항 간 주4회 최초 신설	· 양국 모든공항 간 주4회 → 총 주4회
'01.9월	· 양국 모든공항 간 주4회 추가	· 양국 모든공항 간 주8회 → 총 주8회
'09.5월	· 韓모든공항-UAE아부다비 간 주7회 신설 주4회는 '09, 주3회는 '10부터 적용	· 양국 모든공항 간 주8회 · 韓모든공항-UAE아부다비 간 주7회 → 총 주15회
'23.10월	· 양국 모든공항 간 주6회 추가	· 양국 모든공항 간 주14회 · 韓모든공항-UAE아부다비 간 주7회 → 총 주21회

2. 운항현황 및 탑승률 ['23.8]

국적	항공사	노선	운항횟수 (탑승률)
한국	대한항공	인천-두바이	주7회 (86%)
UAE	에미레이트항공	인천-두바이	주7회 (96%)
	에티하드항공	인천-아부다비	주7회 (95%)